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13,

애가 5: 8-16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3회 애가 5:8-16입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우리는 애가 5장을 시작했고 그것이 어떻게 책의 절정이었는지, 슬픔의 전례의 절정이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두 가지의 촉구에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았습니다. 멘토이자 롤모델인 시온.

멘토는 먼저 시온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했고, 시온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중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멘토는 또한 3장에서 두 번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전 기도를 말했고 이제 공동체가 기도할 차례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마침내 응답이 왔고 회중은 각자의 기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의 멘토와 시온이 말한 많은 것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폐쇄는 아니지만 때로는 폐쇄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비록 그 어느 때보다 고통이 크지만,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그들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그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즉 상황이 더 좋게 변하게 해 달라는 기도에 빠져들 수 있다는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서 그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첫 번째 절에서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익숙하고 평범하게 받아들였던 자유였지만 지금은 점령된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많은 부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전후 상황인데, 이전에 일어났던 바벨론의 침략과 18개월 동안의 예루살렘 포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고통스럽게 되돌아보기보다는 이 전후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우리는 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결론 구절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라고 결정했고, 16절에서 평행선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되돌아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죄에; 16절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주석가들 사이에 대조와 모순을 보는 슬픈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가 말하고 있고 지금은 전혀 다른 것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모순에 대한 주장은 바벨론 포로들의 분노를 담은 에스겔 18장 2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형벌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약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의 이전 죄와 현 세대의 현재 죄를 모두 살펴보는 여기서 취한 노선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서사적 역사와 매우 일치합니다. 북왕국의 종말과 남왕국의 종말. 그러나 그것과 함께 마지막 세대가 성인이었고 그들의 전임자들과 상당히 달랐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아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현 세대의 죄와 이전 세대의 죄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한 시편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거기에서 말한 것을 시편의 다른 구절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 106편에 있고, 6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106편 6절. 우리와 우리 조상이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가 있고, 현재의 죄가 한 구절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반면 애가 7장과 16장은 두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기 전에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인 8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전체가 겪었던 일반적인 괴롭힘, 국민 중 다양한 집단이 겪었던 특정 괴롭힘, 일반적인 슬픔의 표현으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에 관한 고백은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본 세대 간 고백 이후에 일치하고 평행하며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길, 즉 슬픔의 세 가지 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1절의 치욕, 주관적인 느낌, 굴욕, 객관적인 고통과 함께 왔다가 가는 이차적인 고통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 매력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1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치욕을 보고 보십시오.

이 구절들은 그 치욕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동정심을 호소하는 데 계속해서 설득력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섹션의 대부분은 불만의 괴롭힘, 괴롭힘과 관련된 불만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그 장르가 장례 애가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았지만, 1절의 직접적인 기도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상한 장례 애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는 이 한탄을 발견합니다. 노예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곳은 점령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명령 체계에 있어서는 낮지만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외국인, 외국 군인, 행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급 관리들은 경멸적으로 노예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아무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이것은 구약성서의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적절한 사회 질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 일이면 땅이 진동하고, 네 가지 일이면 땅이 지탱하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왕이 되면 노예가 되고, 배불리 먹으면 바보가 되고, 남편을 얻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되고, 여주인의 뒤를 이어 하녀가 됩니다.

그 중 두 가지 경우에는 여기 상황과 일종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왕이 될 때는 노예가 되고 여주인의 뒤를 이어 하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임박한다고 잠언 30장에서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장과 4절의 예언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에는 형벌의 위협이 있고 그 위협의 일부가 있습니다. 내가 소년들을 그들의 방백으로 삼고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아, 정말 나쁜 규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회 질서가 전복되고 사회적 구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전도서 10장과 16절에서도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16장. 오 땅이여, 당신의 왕이 종이 되면 당신에게는 슬프도다.

당신의 왕이 하인일 때나 아이일 때, 같은 히브리어 단어라면 어느 쪽이든 갈 수 있습니다. 오 땅이여, 당신의 왕이 종이거나 어린이라면, 당신에게는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는 계급 구분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예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9절은 공동체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섹션에는 우리와 우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목숨을 걸고 빵을 얻습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칼. 내 생각에 좋은 단서는 예레미야서에서 그 명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 책은 계속해서 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내리실 형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빌로니아의 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칼은 광야에 있고, 그 결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빵을 얻습니다.

상황은 마을에 사는 가족들이 마을 바깥에 밭을 열고 농작물을 밭에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진하는 외국 군대의 공격을 받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위에 떨어져서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광야의 칼 때문에 성밖으로 나가서 밭을 수확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함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절은 일어난 일, 즉 위험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 누가 들판에 나가서 그 농작물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불확실한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기근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화로처럼 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흑인이라는 질문과 뜨거운 열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면 우리의 피부는 오븐처럼 뜨겁고 배고픔으로 인해 열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검은색으로 번역된 동사의 기본적인 문제는 히브리어에도 대부분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동음이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와 이전 말하기 방식의 요소를 가져온 대부분의 개발된 언어에는 동음이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의 껍질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나무 껍질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동음이의어가 있지만 꽤 별개의 단어이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동사는 예, 흑인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타는 것과 검은 침전물로 인한 오븐에 적합할 것입니다.

네, 그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반대쪽에는 뜨겁다는 뜻의 또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선호됩니다.

따라서 R9-RSV보다 더 최근의 NIV는 실제로 열을 가하는 최근 연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는 오븐처럼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더위는 뭐지? 음, 그것은 물리적 기반입니다.

그것은 열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인한 열병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열기는 이곳의 발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글썄요, 농부들과 그들을 돕는 가족들은 위험, 군사적 위험 때문에 들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부족하고 기근과 영양실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병과 질병이 들어왔고 결국에는 이 영양실조로 인해 열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특별한 구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9절의 결과로 봅니다. 지금까지 8~10절에서는 일반적인 괴롭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부분은 8절 9절에서 우리와 우리와 우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하지만 이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히 특정 그룹이 관련된 괴롭힘에 관해 다른 하위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우리, 우리, 그리고 우리의 일반성을 뒤로하고 다시 유배 이후의 점령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특정 그룹, 점령군에 의해 야기되고 부과된 특정 학대에 대해 생각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유다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서도 성범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외국군이 지역을 점령하고 점령한 후 여성이 겪게 되는 운명입니다.

조금 더 일반적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지닌 NIV에서는 시온에서, 유다 성읍의 처녀들에게서 여성들이 침해당했습니다. 글썄요, 이것이 3장의 짧은 독백의 마지막 부분에서 멘토가 말했던 내용과 특히 그를 화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제 영혼에 슬픔을 안겨줍니다. 우리 도시의 여자들. 그러나 이제 이 공동 기도에서 그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졌습니다.

NRSV는 강간이라는 동사를 매우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는 그것을 의미하지만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NIV가 위반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약간 더 나은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적 학대, 성폭행입니다. 그리고 NRSV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약간은 직접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자신의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남성이 자신의 여성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이것이 평등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방백들이 손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장로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전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모욕하려고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형이나 처형에 대한 언급이 아니지만 그들은 묶여 있고 그들의 손은 기둥이나 나무 같은 어떤 구조물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당신의 높고 강력한 통치자들이여, 그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식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롱의 몸짓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장로들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시와 마을은 일반적으로 장로회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 구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 때문에 그들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명한 정부. 그래서 여기서 다시 부정이 일어나고, 사회적 관습을 깨뜨리고,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 중 또 하나가 나옵니다. 젊은 남성들은 여성의 일, 심지어는 노예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음식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갈기를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갈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맷돌질은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매일 아침 보리나 밀알을 가져다가 바퀴 모양의 돌 사이에 맷돌로 갈아서 그 날의 빵을 만들기 위해 가루로 만드는 일상적인 일을 가리킨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주기도문에서 언급한 대로 일용할 양식은 곧 먹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세균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만들어졌고 그 역할은 주부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신약성서의 본문을 보고 그 내용이 나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는 나누어질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구약성서의 여러 본문에서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47년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제국을 다스리는 여왕, 여왕으로 의인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맷돌을 들고 가루를 맷돌로 갈아라. 맷돌을 가져다가 가루를 갈아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쇠퇴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기에 충분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예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이 충분히 크면 집에 노예가 있을 것이고, 아내와 남편이 큰 집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1장과 5절에서 모세가 바로와 이집트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으리라.

그리고 때로는 노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빵을 만들기 위해 이 곡물을 가루로 갈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크게 끄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습은 모든 문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나무 더미 아래서 비틀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4절에서 나무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얻는 나무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요리하려면 불을 피울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짐을 지탱할 만큼 강하지 못한 나무와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이 무거운 무게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불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슬픔과 불만을 안겨준 이 외국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14. 늙은이들은 성문을 떠났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NIV의 변형. 장로들은 성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은 음악을 멈췄습니다.

먼저, 성문 안쪽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될 것입니다. 장날에는 농부들이 농산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문 바로 안쪽에는 시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실제로 양쪽에 벽이 있는 문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쪽 끝에 문이 있는 방이 있고 이 문루에 좌석이 제공되는 문루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루에는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NRSV에서는 노인들이죠.

그 장점은 청년들과 정반대라는 점이다. 그래서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새로운 국제 버전이 더 선호되는 것 같아요.

성문은 특히 장로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들이 날마다 앉아서 그 성이나 도시의 일을 논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은 성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바로잡아야 할 불만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의회실이었습니다.

이 문루는 의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아스가 롯과 그녀의 시어머니를 위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롯기서에서 이에 대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옆 친척인 이 친척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장로들이 모이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를 발견합니다.

괜찮은. 장로님들, 여기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묵인 사람들, 즉 마을과 도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민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사람들에게 큰 무례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청년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떠났다.

이 공공 광장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함께 모여 오락을 위한 음악을 만들고, 성문 옆 광장에 있던 대중들과 함께 즐겁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음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글썄, 우리는 방금 들었습니다.

그들은 갈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할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일만 하고 놀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3절과 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쉬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일과가 끝난 후 젊은이들이 와서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곤 했습니다.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점령 당국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관행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는 다시 일반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슬픔에 대한 언급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의 첫 줄이 함께 연결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멈췄습니다. 우리의 춤은 애도로 바뀌었습니다.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락적 표현과 유쾌한 청년들이 만나서 음악을 만드는 모습은 이제 일반화되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슬픔에 대한 일반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멈췄습니다. 우리의 춤은 애도로 바뀌었습니다.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표현은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불만은 반전이었지만 불만의 생각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히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즉 감사의 시편인 시편 30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처리되었고, 감사의 노래를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제를 가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0장 11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애도를 춤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것은 시편이 장례식 애도뿐만 아니라 특정 위기와 관련된 애도 행위와 애도 관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반대가 발생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멈췄습니다. 우리의 춤은 애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글쎄요, 몇몇 평론가들은 "오, 왕관이요?"라고 말합니다. 글쎄, 그건 왕실처럼 들리는데, 우리는 이전에 왕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실의 일부는 다윗 왕조의 전통이었으며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즉각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관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 단어는 왕관보다 더 넓습니다.

때로는 축제의 표시로 꽃과 잎으로 만든 화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에는 이에 대한 예가 있는데, 그곳에서 선지자는 북쪽 왕국의 지도자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통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규칙의 일부는 그들이 폭동적인 파티에서 시간을 보내고 술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화환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지적한 점은 그 화환들이 그들의 파티가 끝날 것이라는 표시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에브라임 술 취한 자들의 자랑스러운 화관이요,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른 자들과 포도주에 눌린 자들의 머리 위에 있는 그 영광의 시드는 꽃이로다. 보라, 여호와께는 능하고 강한 분이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3절과 4절은 짓밟힌 에브라임 술취한 자들의 자랑스러운 화관이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의 시드는 꽃이 되리라.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함께 하던 그 화환은 순진한 의미에서 파티와 환희와 함께 했고,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 머리에서 떨어졌습니다.

화환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치고 우리의 춤이 애통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줄, 16절의 마지막 절반 줄에는 불만과 슬픔이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7절에서 이 핵심 구절로 돌아오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죄책감은 멘토가 했던 말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7절과 16절의 절정적인 지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외국의 점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를 돌아보며 이것을 유다의 죄에 대한 야훼의 형벌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성한 섭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 자신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죄책감에 대한 결론적인 언급은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고통받고 있지만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만과 슬픔의 기록 끝에는 솔직한 인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기초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기초이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메시지는 회중이 멘토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포위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서 전후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단지 한탄과 비통함이 아니라 죄의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중이 이 시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회개의 고백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멘토가 듣기에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재앙, 이 전체 재앙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책 전체에 걸쳐 흐르며, 멘토는 1장 5절과 1장 8절에서 그렇게 해석했고, 그런 다음 시온은 1장 18절과 1장 20절에서 사실로 알려진 이 부르짖음, 이 비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온은 2장 14절에서 다시 그 곳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 3장과 40절부터 42절까지는 회개하라는 멘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거기를 살펴보면 이것이 참으로 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도 장 전체에 걸쳐 불길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는 내 백성을 향한 징계가 소돔의 형벌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경우 모두 야훼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중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 형벌 끝났음, 형벌 끝났음을 표현하면서 형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청하고 있는 회중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그 형벌의 바탕이 되는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절과 7절에서 세대 간 방식으로 그렇게 하며,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솔직한 고백은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가 5장의 마지막 구절인 17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애가서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3회 애가 5 :8-16입니다 .